

## 브라질 헤알화 최대 낙폭 기록

### □ 헤알화 대폭락

- 7월 29일 브라질 헤알화는 전영업일 대비 5.39% 폭락한 3.175로 마감함.

- 헤알화는 금년 들어 27% 평가 절하되었으며, 이번 헤알화 폭락은 1999년 1월 자유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최대 낙폭임.

#### - 헤알화 폭락 원인은

o PSDB 대선후보인 주제 씨하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PPS 대선 후보인 씨로 고메스의 지지율이 계속 증가하면서 룰라와 씨로 고메스가 결선투표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,

o 미국 재무장관(Treasury Secretary) 폴 오넬이 “Fox News Sunday” 프로그램에서 다음주 남미 순방 중 브라질에 대한 신규자금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

o IMF가 브라질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브라질이 3,37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부채의 채무상환불능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임.

- 브라질은 1998년 이후 IMF로부터 총 330억 달러의 자금을 도입하였으며, 동 IMF 프로그램은 금년 12월 종료 예정임.

- 그러나, 투자자들은 브라질 정부의 공공부채 상환과 외환보유액 유지를 위해서는 IMF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음.

- 한편, 브라질 정부부채의 절반 정도가 달러화 표시이거나 달러환율에 연동되어 있어 헤알화 폭락은 브라질 정부의 채무상환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.
- 헤알화의 대미달러 환율 1센타보 상승은 월간 1,200만 달러의 정부부채 증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됨.

## □ 향후 전망

- 헤알화 폭락으로 브라질 중앙은행이 7월 30일(화)을 은행 임시 휴무일로 지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금융시장에 유포되고 있음.
- 투자자들은 브라질 중앙은행이 점차 금융시장의 통제권을 상실하고 있으며, 헤알화 투기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음.
- 한편, 브라질 정부는 IMF와의 협상을 위해 사절단을 워싱턴에 파견할 계획이며, 말란 재무장관은 IMF와의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.
- 그러나 브라질 대선 지지율 1,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룰라와 씨로 고메스는 10월 대선 이전에 IMF와 추가 지원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, IMF의 대브라질 추가자금지원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임.
- 브라질 금융시장은 대선후보의 지지율 변동과 IMF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급변하는 불안정한 양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.

책임연구원 김영석(☎3779-6653)  
E-mail : claudio@koreaexim.go.kr